

# 대전광역시 141개 국공립 초등학교 학습준비물구입비

## 세부내역 분석결과 발표 기자 회견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문창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기자회견 취지
- 인사말
- 대전광역시 141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구입비 세부내역 분석결과 결과 발표
- 질의 및 응답

■ 일시 : 2013년 7월 26일(금) 11시

■ 장소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회의실

■ 주최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기자회견문]

## **공개된 2012년 학습준비물 결산내역이 다른 이유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 **학습준비물구입비 부풀리기를 중단하고, 학습준비물구입비를 현실화하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4월 16일, 5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대전 141개 국공립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①2012년 초등학습준비물 지원계획, ②2012년 초등학습준비물 집행내역, ③2013년 초등학습준비물 지원계획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그 세부내역에 대한 분석을 마쳤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이번에 정보공개청구 및 분석한 결과,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학습준비물 구입비 집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첫째, 결산내역이 다르다.** 애초 대전광역시교육청이 공개한 ‘2012학년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결산 내역’에 의하면 대전지역 141개 국공립초등학교의 학습준비물구입비는 약 24억9천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141개 국공립초등학교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받은 결산자료에 의하면 약 22억4천만원으로, 약 2억5천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이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일선 초등학교의 학습준비물구입예산집행내역에 대한 지도, 감독의 부재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둘째, 학습준비물이 아닌 물품을 다수 구입하였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정보공개 청구한 <2012년 초등학습준비물 집행내역>을 초등학교의 현장 교사들이 직접 분석한 결과, 학습준비물 구입비로 집행할 수 없는 다수의 품목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습준비물은 교과과정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지, 과학기교구, 체육기교구의 구입비용은 물론, 현수막, 신문대금, 외장하드 등의 구입비용까지 포함돼 있었다. 이처럼 학습준비물구입비로 보기 힘든 내역을 제외한 학습준비물구입비 최종 결산액은 약 19억9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학습준비물 구입비 부풀리기가 드러났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11년 각 초등학교에 「2012학년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예산 확보 철저」라는 공문을 통해 학생 1인당 학습준비물 지원액을 25,000원 이상 확보토록 했다. 그러나 2012년 10월 「학습준비물 지원지침 조정안내 및 집행 실적 보고」라는 공문에서는 학습준비물의 범위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수업 시간에 활용되는 각종 물품으로

학습준비물을 확대”시킨다. 그 이유는 “매년 국정감사 및 행정감사 등에 학습준비물 지원 실적 저조로 교육청의 기관 이미지가 훼손”되었기 때문이라 한다.

결국 학습준비물구입비의 집행을 지도, 감독해야 할 대전광역시교육청이 기관의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해 편법으로 지침을 바꿔가며 학습준비물로 볼 수 없는 내역까지 학습준비물로 포함시켜 결산을 부풀린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학습준비물구입비 부풀리기로 인해, 제대로 학습준비물을 지원받지 못해 학생들이 ‘수업권 보장’이라는 권리에 커다란 침해를 받았다는 점이다. 또한 제대로 운용되지 못한 학습준비물 지원액은 고스란히 학부모의 비용으로 전가돼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최우선으로 내세운 “학부모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경감”이라는 애초의 취지가 유명무실하게 됐다.

우리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이 학습준비물 구입비의 현실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교육청과 정보공개한 자료의 결산액이 다른 이유에 대해 즉시 밝힐 것을 요구한다. 또한 학습준비물구입비를 제대로 편성하지 않았거나 집행하지 않은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향후 학습준비물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초등학교의 학습준비물구입비를 현실화시켜 2014년 예산편성에 즉각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더 이상 대전지역의 초등학생들이 다른 지역의 초등학생들보다 학습준비물구입비에서 차별받지 않기를 바란다. 학습준비물구입비가 교장의 재량이라고 하더라도 대전광역시교육청의 방치로 인해 지역간, 학교간 차별받는 상황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 별첨 1. 대전광역시 141개 국공립 초등학교 학습준비물구입비 세부내역 분석 보고서 요약문

※ 별첨 2. 대전광역시 141개 국공립 초등학교 학습준비물구입비 세부내역 분석 보고서

※ 별첨 3.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수학습지원과-15489 2012학년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예산 확보 철저』 공문

※ 별첨 4.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수학습지원과-16209 학습준비물지원지침 조정 안내 및 집행 실적 보고』 공문

- 본 기자회견문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http://www.cha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문창기 사무처장 010-8803-1832, 염대형 시민참여국장 016-510-5560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형돈, 성광진, 이현주

※ 별첨 1.

대전광역시 141개 국공립초등학교 학습준비물구입비 세부내역 분석결과 보고서(요약본)

1. 개요

- 학습준비물의 개념 : 학생이 정규 교육과정을 위한 학습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소모성 자료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4월 16일, 5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①2012년 초등학습준비물 지원계획, ②2012년 초등학습준비물 집행 내역, ③2013년 초등학습준비물 지원계획을 정보공개청구
- 특히 2012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결산내역 분석은 전교조대전지부의 현장교사들이 학습준비물구입비로 집행 가능여부를 분석한 내용임.

2. 대전광역시 국공립초등학교 2012년, 2013년 학습준비물 지원계획 수립 여부 분석

- 근거 : 대전광역시교육청 2011년, 2012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지침
- 내용 : 학년별, 과목별 공통 학습준비물 목록 작성, 학교별 지원계획 수립하도록 함.
- 분석결과 : 2012년 지원계획 미수립학교 27개교(19.1%), 2013년 지원계획 미수립학교 16개교(11.3%)

3. 2012년 대전지역 국공립 초등학교 학습준비물구입비 결산내역 분석 결과

- 대전광역시교육청이 공개한 학습준비물구입비 결산총액은 2,491,541,470원, 일선 초등학교가 공개한 학습준비물 구입비 결산총액은 2,239,754,361원으로 251,787,109원(10.1%)의 차액이 발생.
- 일선 초등 교사들이 분석하여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이 아닌 품목 구입 금액을 제외한 경우, 2012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구입비로 실제 지출한 금액은 1,996,235,867원. 이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보고된 대전지역 141개 국공립초등학교의 2012년 학습준비물 구입비의 80.1%에 불과.
- 또한 대전광역시교육청이 공개한 학습준비물구입비 결산금액과 일선 초등학교가 공개한 학습준비물 구입비 결산금액이 일치하는 학교는 141개교 중 49개교(34.8%)에 불과하고, 최대 24,615,270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학교도 있음.

4. 2012년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 내역에 대한 현장 교사 분석 결과

- 학습준비물이 아닌 품목을 구입하고 학습준비물구입비로 계상한 금액은 243,518,494원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보고된 2012년 학습준비물구입비 결산총액의 9.8%에 달함.
- 특히 학습지류 구입에 104,404,410원(학습준비물 이외의 품목 구입비 중 42.9%)을 지출하였고,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보고된 2012년 학습준비물구입비 결산총액의 4.2%에 해당함.

## 5. 오락가락하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지침의 문제

- 2011년 12월 16일 「교수학습지원과-15489 2012학년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예산 확보 철저」 공문을 통해 1인당 학습준비물 지원액 25,000원 이상 편성, 학교별로 학습준비물 지원계획 수립, 추진, 학습준비물의 개념을 “학생이 정규 교육과정을 위한 학습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소모성 자료”로 개념 정의
- 그러나 2012년 10월 29일 「교수학습지원과-16209 학습준비물지원지침 조정 안내 및 집행 실적 보고」 공문을 통해 “학습준비물은 표준교육과정에 직접 투입되는 제 사업비”로 학습준비물의 개념을 확대함, 입장이 바뀐 이유로 “매년 국정감사 및 행정감사 등에 학습준비물 지원 실적 저조로 교육청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움.
- 그러나 학습준비물구입비와 교과운영비는 학교 예산상 엄연히 다른 항목일 뿐만 아니라, 학습준비물과 교과운영비 취지의 다름. 또한 교과운영비를 포함시키면 학교운영지원비가 대폭 증액되는 왜곡현상 등의 문제 발생

## 6. 초등학교별 모범 사례 분석

- 학습준비물구입비를 본래의 목적에 맞게 학습과정에 필요한 소모품 위주로 집행, 실질적인 학습준비물을 지원한 모범사례는 계산초, 서대전초, 석교초, 송강초 등 4개교(전체 국공립초등학교의 2.8%)로 나타남.
- 나쁜 사례는 18개교(전체 국공립초등학교의 12.8%)로 체육대회용품, 행정실 물품, 제본기, 코팅기, 외장하드, 학교특색사업을 위한 비품 등을 학습준비물에 포함시킴.

## 7. 결론

- 전반적으로 대전지역 초등학교의 학습준비물구입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것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이 매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지침』을 통해 학년별, 과목별 공통 학습준비물 목록 작성 및 학교별 지원계획 수립을 요구만하고,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지도, 감독의 부재가 문제임.
- <2012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결산 내역> 분석 결과 학습준비물로 보기 어려운 물품구입에 지원액이 포함돼 있음. 따라서 학습준비물구입비가 잘못 집행되면서 학부모들이 부족한 학습준비물을 구입하는 비용의 전가가 문제됨.
-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이미지 훼손에 따라 학습준비물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실질적인 학습준비물 구입의 축소 가능성이 큼. 뿐만 아니라 학습준비물을 준비하지 못한 학생들은 제대로 수업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대전광역시교육청에 의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대전광역시교육청의 <2012년 초등학교학습준비물 집행 내역> 결산액과 일선 초등학교가 제공한 정보공개자료의 결산액이 다른 이유에 대한 명확한 해명 필요.
- 2014년 예산편성 시 현실화한 학습준비물구입비 예산 반영 필요.

※ 별첨 2.

## 대전광역시 141개 국공립 초등학교 학습준비물구입비 세부내역 분석결과 보고서

### 1. 개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4월 2일 대전광역시교육청에 <2012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결산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 그 분석 결과를 지난 6월 10일 발표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2012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결산 내역> 분석 결과,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지난 3년간 학습준비물구입비 1인당 지원액이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고, 대전 국공립초등학교 141개 중 44개교가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지침>에 규정한 최소한의 비용인 25,000원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4월 16일과 5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대전시 내 141개 국공립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①2012년 초등학습준비물 지원계획, ②2012년 초등학습준비물 집행내역, ③2013년 초등학습준비물 지원계획 등 세부 내역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이를 토대로 학습준비물구입비의 집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 2. 대전광역시 국공립초등학교 2012, 2013년 학습준비물 지원계획 수립 여부 분석

<표 1> 2012, 2013년 대전광역시 국공립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계획 수립 여부 분석

구분	2012년 지원계획 수립 학교 수	2013년 지원계획 수립 학교 수
141개교(100.0%)	114개교(80.9%)	125개교(88.7%)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12년 및 2013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지침』을 통해 각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 학년별, 과목별 공통 학습준비물 목록을 작성하여 학교별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정보공개자료를 확인한 결과, <표 1>에서 보듯 2012년에는 27개 학교(19.1%)가, 2013년에는 16개 학교(11.3%)가 학습준비물에 대한 지원계획을 세우지 않은 채 예산을 운용하고 있었다.

이는 학습준비물구입 예산의 주먹구구식 집행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학습준비

물 구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습과정에 제대로 된 학습준비물 제공이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일선 초등학교에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지침』을 보내는 형식적 통제가 아니라, 학습준비물 구입계획을 일선 학교가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할 것을 제안한다.

### 3. 2012년 대전지역 국공립 초등학교 학습준비물구입비 결산내역 분석 결과

#### 1) 2012년 국공립 초등학교 학습준비물구입비 결산 내역 비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지역 141개 국공립 초등학교의 <2012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결산내역>을 ① 대전광역시교육청 결산액, ② 정보공개자료 결산액, ③ 초등학교 현장 교사가 분석한 결산액을 토대로 아래 <표 2>로 정리하였다.

<표 2> 2012년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3개 지표 결산 내역 비교

구분	2012년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결산액	교육청 결산 대비 비율	1인당 지원액 (전체 97,321명)
대전광역시교육청 결산액	2,491,541,470원	100.0%	25,601원
정보공개자료 결산액	2,239,754,361원	89.9%	23,014원
현장분석 결산액	1,996,235,867원	80.1%	20,511원

※ 참조 1. 대전광역시교육청 결산액 :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제공한 141개 국공립 초등학교 2012학년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결산액을 의미

※ 참조 2. 정보공개자료 결산액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141개 국공립 초등학교 2012학년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집행내역 결산액을 의미

※ 참조 3. 현장분석 결산액 : 초등학교 현장 교사들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보공개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학습준비물이 아닌 내역을 제외한 결산액을 의미

대전광역시교육청이 공개한 2012학년도 141개 초등학교의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결산 내역>은 2,491,541,470원이었지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141개 초등학교에 정보공개 청구하여 받은 자료에 의한 결산액은 2,239,754,361원으로 251,787,109원의 차액을 보였다. 이는 141개 국공립초등학교가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보고한 2012년 학습준비물구입비 결산에 10.1%가 못 미치는 비율로 학생 1인당 평균 23,014원(대전광역시교육청의 최소 기준인 25,000원의 92.1%)에 밖에 지원하지 않았다.

또한 141개 국공립초등학교의 정보공개자료를 현장 교사들이 직접 분석한 결과, 학습준비물이 아닌 물품구입비용을 제외하고 순수한 학습준비물구입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1,996,235,867 원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결산액 2,491,541,470원보다 무려 495,305,603원이나 적은 액수였다. 이는 대전지역 141개 국공립초등학교가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보고한 결산액보다 19.9%에 낮은 비율로, 현장 교사들의 분석대로라면 2012년 대전지역 초등학생 1인당 평균 20,511원(대전광역시 교육청의 최소 기준인 25,000원의 82.0%)을 지원한 효과밖에 없는 것이다.

참고로 현장 교사들이 짚어낸 학습준비물이 아닌 내역을 보면 학습지를 비롯하여 체육기교구, 과학기교구 등 교과운영비로 구입해야 하는 물품을 포함한 것은 물론이고, 현수막, 신문대금, 외장하드 구입 등이 다수 들어 있었다. 따라서 학습준비물로 보기 힘든 내역을 제외한 최종 결산액은 1,996,235,867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초등학교에서 학습준비물구입비 결산을 교육청에 보고한 결과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 공개한 결산액의 차이가 크게 발생한 원인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초등학교의 학습준비물구입비 예산수립 및 집행, 세부 내역에 대한 제대로 된 지도, 감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2)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일선 초등학교의 학습준비물 결산 차액 발생

아래 <표 3>은 141개 초등학교의 정보공개자료 결산액과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결산액을 비교한 자료다. 그 결과, 49개교(34.8%)만 결산액이 일치했을 뿐, 나머지 92개교(65.2%)는 다른 차액을 보였다.

<표 3>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2012년 학습준비물구입비 결산 비교

구분	학교수	비고
결산 초과	18곳(12.8%)	최대 6,724,820원 결산 초과
일치	49곳(34.8%)	대전광역시교육청 결산내역 = 정보공개자료 결산내역
100만원 미만	33곳(23.4%)	
1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미만	26곳(18.4%)	
500만 이상 ~ 1000만원 미만 미만	8곳(5.7%)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미만	5곳(3.5%)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미만	2곳(1.4%)	최대 24,615,270원 결산 미달
전체 합계	141곳(100.0%)	

141개 초등학교 중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결산액을 초과한 학교는 18개교(12.8%)로 최대 6,724,820원을 더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4개교의 정보공개자료 결산액이 대전광역시교육청 결산액보다 적었는데, 500만원 미

만의 차이를 보인 학교는 59개교, 500만원 이상 차액을 보인 학교는 15개교나 됐다.

특히 서부교육지원청 산하의 A초등학교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 공개한 결산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 공개한 결산의 차액이 가장 컸는데, 대전광역시교육청 결산에서는 35,415,000원, 정보공개자료 결산에서는 10,799,730원으로 무려 24,615,270원의 차액을 보였다.

이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의무교육의 현실화에 대한 의지의 부족, 초등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엄중한 지도, 감독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선 초등학교가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보고한 결산금액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 공개한 결산금액이 다른 건 심각한 불법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명확한 해명이 요구된다.

#### 4. 2012년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 내역에 대한 현장 교사 분석 결과

초등학교 현장 교사들이 직접 학습준비물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2년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구입비 결산 총액 중 취지에 맞게 집행된 금액은 1,996,235,867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대전광역시교육청 결산내역인 2,491,541,470원 중 80.1%만 제대로 집행되었고, 나머지 495,215,603원은 학습준비물구입비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2012년도 학습준비물로 포함시킬 수 없는 내역

구분	금액	사용내역
학습지	104,404,410	한자교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기출문제집, 영어교재 등
과학	43,217,900	인체모형, 비커, 삼각플라스크, 아세톤, 메탄올, 퇴적암실험관찰 키트, 부레옥잠, 수조, 배추흰나비세트, 건전지, 전구 등
체육	23,794,719	줄넘기, 공, 유연성측정기, 초시계, 라켓류, 팽이, 제기차기, 전자호루라기, 포환 등
기타	72,101,465	동화책, 코팅기, 팀조끼, 신문대금, 앰프, 외장하드, 음악CD, 서랍장, 적성검사도구, 카메라, 현수막, 게시판, 돌봄교실, 영어, 특수, 모자, 책꽂이, 실물화상기 등
총계	243,518,494	

※ 참조 1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습준비물 결산액 - 정보공개자료 결산액 = 251,787,109원

※ 참조 2 : 참조 1 + <표 4> 총계 = 495,215,603원

<표 4>에서 보듯 학습준비물이라고 보기 힘든 학습지, 과학기교구, 체육기교구, 기타 등의 비용이 대폭 포함돼 있었다.

문제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학력신장 제일주의’로 인해 한자교재, 학업성취도 문제집, 영어

교재 등 학습지 구입비로만 1억원이 넘는 금액이 학습준비물구입비라는 명목으로 지출됐고, 도저히 학습준비물로 볼 수 없는 신문대, 현수막, 외장하드 등의 비용이 학습준비물구입비에 포함돼 있었다.

학습준비물구입비 집행 내역이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집행된 것은 전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일선 초등학교의 학습준비물구입비 예산 및 결산, 집행내역에 대한 지도, 감독의 부재를 의미한다. 따라서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학습준비물구입비를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일선학교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습준비물 구입비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학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여 잘못 집행된 내용에 대한 개선과 학습준비물구입비의 실질적인 효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5. 오락가락하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지침

대전광역시교육청 결산내역이 정보공개자료 결산액과 현장 교사들이 검증한 결산액보다 더 높은 이유는 바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일관성 없는 행정 지침 때문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일선 초등학교에서 학습준비물이 제대로 지원되도록 지도, 감독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엉뚱한 내역이 학습준비물 구입비에 포함되도록 물품 내역을 조장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교수학습지원과-15489 2012학년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예산 확보 철저(2011. 12. 16)』 공문에서 “학생 1인당 학습준비물 지원액이 25,000원 이상”이 되도록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고, 학교별로 학습준비물 지원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을 지침으로 내렸다. 아울러 학습준비물의 개념을 “학생이 정규 교육과정을 위한 학습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소모성 자료”로 “과학실험실습을 위한 물품, 방과후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무료교재 제공 등의 비용은 제외”한다고 공문에 분명하게 명시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교육청이 학습준비물구입비를 1인당 25,000원 이상 편성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141개 국공립초등학교 중 27개교(19.1%)가 예산편성 기준에 미달됐고, 집행내역에서는 44개교(31.2%)로 늘어났다. 2013년 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이 학생 1인당 학습준비물구입비로 30,000원 이상을 예산편성토록 지침을 내렸지만, 16개교(11.3%)가 미달이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이 『교수학습지원과-16209 학습준비물지원지침 조정 안내 및 집행 실적 보고(2012. 10. 29)』 공문을 통해 행정지침을 바꿨다는 점이다. 학습준비물의 개념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수업 시간에 활용되는 각종 물품으로 학습준비물을 확대”시켜 어느 물품이든 학습준비물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시킨다.

말하자면 편법으로 지침을 바뀌가며 학습준비물로 볼 수 없는 내역까지 학습준비물 구입비로 포함시켜 결산을 부풀린 것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이 개념을 변경한 이유는 “매년 국정감사 및 행정감사 등에 학습준비물 지원 실적 저조로 교육청의 기관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음을 들었다. 공문을 통해 학습준비물구입비의 범위를 확대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첫째, 학습준비물구입비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이 포함시킨 교과운영비는 학교 예산상 엄연히 항목이 다르다. 둘째, 학습준비물구입비와 교과운영비는 그 취지가 달라 구입품목이 다를 수밖에 없다. 셋째, 이런 과정을 통해 교과운영비로 집행된 내용까지 학습준비물구입비에 포함시키는 것은 학습준비물구입비가 대폭 증액된 것으로 왜곡시킬 수 있고, 결국 학습준비물구입비의 현실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이 학습준비물구입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은 국정감사 등에서 학습준비물비의 실적 저조로 인한 기관 이미지 훼손이다. 그러나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이러한 조치로 인해 대전지역 초등학교 1인당 학습준비물구입비는 부풀려질 수밖에 없다. 결국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 취해진 학습준비물구입비 부풀리기로 인해 1인당 학습준비물구입비의 현실화는 더 요원하게 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1년 단위로 학습준비물구입비와 관련한 정책이 변함으로서 일선 학교의 학습준비물구입비와 관련하여 혼선을 겪을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6. 초등학교별 모범 사례 분석

현장 교사들이 <2012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결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전광역시교육청이 학습준비물구입비 부풀리기 등을 시도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계산초등학교, 서대전초등학교, 석교초등학교, 송강초등학교 등 4개교는 학습준비물구입비를 모범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5> 초등학교별 사례 분석 결과표

구분	학교 수	비율	비고
모범사례	4개	2.8%	계산초, 서대전초, 석교초, 송강초
무난한 사례	119개	84.4%	
나쁜 사례	18개	12.8%	
합계	141개	100.0%	

모범사례로 선정된 계산초, 서대전초, 석교초, 송강초 등 4개교는 학습준비물구입비를 본래의 목적에 맞게 학습과정에 꼭 필요한 소모품 위주로 집행했고, 학년별 모든 학생들에게 학습준비물이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난한 사례로 선정된 학교는 전체 141개교 중 119개교로 대부분 소모품 위주로 집행했지만, 이들 학교 중 절반 이상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부풀린 학습준비물 개념을 적용시켜 소모품 중심의 학습준비물 이외에도 학습지, 과학기교구, 체육기교구 등 학습준비물로 보기 힘든 내역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나쁜 사례로 선정된 18개 학교는 학습준비물구입비로 현수막, 신문대금, 외장하드, 체육대회 물품, 행정실 물품, 제본기, 코팅기, 학교특색사업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역들이 학습준비물구입비로 포함돼 있었다. 이는 학습준비물구입비의 본래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학습준비물구입비가 줄어든 역효과가 발생했다.

## 7. 결론

첫째,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지난 3년 연속(2010~2012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학생 1인당 학습준비물 지원비가 최하위였다. 이는 학습준비물구입비라는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예산편성 및 결산, 집행내역에 대한 지도,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2012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결산 내역> 분석 내용처럼 본래의 학습준비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물품들을 결산액에 포함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교육청이 밝혔던 학습준비물구입비로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경감되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학습준비물구입비를 잘못 사용하면서 학부모들에게 부족한 학습준비물구입비에 대한 비용 부담을 전가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셋째, 더욱 큰 문제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행정지침의 변경으로 인해, 일선 초등학교의 학습준비물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학습준비물로 볼 수 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면서 필요한 학습준비물 구입은 결국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학습준비물은 학생이 준비해야 하고, 준비하지 못한 학생들은 제대로 수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결국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이미지 훼손을 막고자 한 학습준비물 범위 확대라는 임시처방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 우리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이 공개한 학습준비물구입비 결산과 일선 초등학교가 공개한 학습준비물구입비 결산에 차액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즉시 밝힐 것을 요구한다. 또한 학습준비물구입비를 예산편성지침대로 편성하지 않았거나 집행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즉시 감사를 실시하여 바로 잡을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초등학교의 학습준비물구입비를 현실화시켜 2014년 예산편성에 즉각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대전지역의 초등학생들이 다른 지역의 초등학생들보다 학습준비물구입비에서 차별받지 않기를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학습준비물구입비가 교장의 재량이라고 하더라도 대전광역시교육청의 방치로 인해 지역 간, 학교 간 차별받는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 별첨 3.

한국교육의 중심 · 미래교육의 중심 · 행복교육의 중심



## 대전광역시교육청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2학년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예산 확보 첩지

1. 학습준비물 구입·지원을 통하여 학습에 필요한 준비물을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 2012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시 학생 1인당 학습준비물 지원액이 25,000원 이상이 되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붙임의 학습준비물 지원 지침을 바탕으로 학교별 학습준비물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습준비물 개념

- 학생이 정규 교육과정을 위한 학습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소모성 자료 (도화지, 색종이, 수수깡, 찰흙, 필통만들기 재료 등)

단, 과학 실험 실습을 위한 물품, 방과후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무료 교재 제공 등의 비용은 제외함

※ 2011년 국정감사 결과 우리교육청의 2011학년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예산액이 16개 시도중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됨.

(2011년 우리교육청 초등학교 1인당 지원액 : 16,925원, 16개 시도 평균 초등학교 1인당 지원액 : 25,270원)

- 붙임 1.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지침 1부.  
2. 학습준비물 지원 품목(예시) 1부. 끝.

## 대전광역시교육감

수신자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교수학습지원과장),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교수학습지원과장), 초

---

주무관 학사지원담당사무관 교수학습지원과장

협조자 장학지원담당 장학관

시행 교수학습지원과-15489 ( ) 접수 ( )

우 302-703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89 (둔산2동 1294) 4층 / <http://www.dje.go.kr>  
전화 042-480-7627 / 전송 042-480-7631 / [exhi777@edurang.net](mailto:exhi777@edurang.net) / 공개

※ 별첨 4.

한국교육의 중심 · 미래교육의 중심 · 행복교육의 중심



## 대전광역시교육청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학습준비물지원지침 조정 안내 및 집행 실적 보고

1. 관련 : 교수학습지원과-15489(2011.12.16.)

2. 학습준비물은 기본적 교육활동비(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 24쪽) 즉, 표준교육과정에 직접 투입되는 제 사업비에 해당됨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학습준비물지원지침을 아래와 같이 변경 조정 하오니 관련 예산 집행 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현 행	변 경
학 습 준 비 물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이 정규 교육과정을 위한 학습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소모성 자료(도화지, 색종이, 수수깡, 찰흙, 필통 만들기 재료 등)</li> <li>단, 과학 실험실습을 위한 물품, 방과후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무료 교재 제공 등의 비용은 제외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수업 시간에 활용되는 각종 물품</li> </ul>

3. 또한, 매년 국정감사 및 행정감사 등에 학습준비물비 지원 실적 저조로 우리 교육청의 기관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는 바, **1인당 기준액(25,000원)이상 집행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학습준비물비 예산 집행실적을 아래와 같이 자료집계시스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지원청에서는 행정지도 및 관할 학교 자료집계 취합 제출).

학교명	학생수 (4.1.자)	학습준비물비 예산액(단위:원)	학습준비물비 집행액(단위:원)	보고기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2012.10.31.기준) : 2012.11.5.까지</li> <li>- 2차(2012.12.31.기준) : 2013.1.5.까지</li> <li>- 최종(2013.2.28.기준) : 2013.3.10.까지</li> </ul>

끝.

## 대전광역시교육감

수신자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초등학교장

주무관

학사지원담당사무  
관

교수학습지원과장

협조자

시행 교수학습지원과-16209 ( ) 접수

( )

우 302-703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89 (둔산2동 1294) 4층

/ <http://www.dje.go.kr>

전화 0424807628

/전송 0424807631

/ [psjuwon@edurang.net](mailto:psjuwon@edurang.net)

/ 공개